NH농협은행, 소진공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소상공인 육성·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 이상래 디지털금융부문장(오른쪽)과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DL건설,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나서

DL건설이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가운데)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DL건설 유상만 건축사업본부장(왼쪽 첫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건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연 1000건 돌파

CJ대한통운이 6월1일부터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BEST 택배기사' 사연 모집 이벤트에 1000건이 넘는 감동 사연들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따뜻한 사연이 담긴 택배기사 이야기들을 보내온 가운데 CJ대한통운은 앞으로 선정된 사연들을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CJ대한통운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는 '우리동네 BEST 택배기사는' 배너를 선택하고 사연을 올리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박지은 이대목동 주임 치과위생사 '복지부 장관상'

이대목동병원 박지은 주임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1년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지은 주임 치과위생사(가운데)가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오른쪽), 이대목동병원 치과 방은경 과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bhc치킨

사회공헌 관심도 '업계 1위'

bhc치킨이 치킨업체 중 사회공헌 관심도 1위 브랜드에 등극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5월 국내 7개 치킨 업체를 대상으로 뉴스·카페·블로그·커뮤니티, SNS 채널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bhc치킨이 사회공헌 관련 정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hc치킨은 2017년부터 '해바라기 봉사단', 'bhc 히어로'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헌 활동인 BSR(bhc+CSR)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호국보훈의 달, 날선 말보다 손내미는 실천 필요

문 형 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매년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대한민국의 6월은 엄동설한에 죽지도 않고 돌아온 각설이 마냥 요란한 것 같다. 정치인들은 언제부터 자신이 애국자인냥 현충원을 찾고, 호국보훈·현충의식 등을 입에 담으며 정치행보를 보인다. 말은 돈이 안 드니까 화려한데 행동으로는 어떨까란 생각이 든다.

29일 보훈처가 발표한 보훈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보훈의 가치를 '중립적'이라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57.5%는 사회통합이라고 답했고 7%만 사회분열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3.5%는 보훈의식은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회가 통합되는 '가치중립적' 기능이 있지만, 사회의 실천 분위기는 뒤따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시민들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정치인들이 보훈의 가치를 '정치적 갈라치기'에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요즘 뜨거워진 이슈인 천안함이 대표적인 정치 진영간의 전투현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 우려된다. 11년 전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됐을 당시, 현장에서는 전투상황보고가 올라갔지만 합참과 국방부를 거치면서 좌초로 보고가 바뀌어버렸다. 청와대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는 '정치 군인'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게 응당의 도리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시 정부는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환자복을 입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안보를 중시여긴다는 보수 정부때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등이 소폭 늘어났지만, 남북대화와 평화분위기에 심취한 진보 진영은 천안함 생존자들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으로 몰아갔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인사들이 북한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자'들 손을 들면서 천안함 생존 전우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뜯어버린 것이다.

집권 여당의 일부 당원들이 만든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에는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생존 전우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문제가 이렇게 되다보니,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다시 '천안함'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천안함 기념모자를 쓰고 보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등 국민의힘 의원 21명은 북한 도발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나 취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 너무 늦게 나온 셈이다.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다. 정치적 꼼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보훈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 이상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참전 등의 국가수호 활동을, 75.8%는 민주화운동을 모두 보훈의 소중한 가치라고 인정했다. 부디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시민들이 보훈의 신성한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captinm@metroseoul.co.kr

대한항공-현대오일뱅크, 바이오항공유 협력 나선다

기후변화 리스크 적극 대응
바이오항공유 제조 등 협력

대한항공이 항공 부문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와 협력한다.

대한항공과 현대오일뱅크는 6월 30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이번 협력은 항공부문 기후변화의 주요 대응 수단으로 바이오항공유 사용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바이오항공유 상용화 및 사업 기회 발굴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30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왼쪽)과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곡물이나 식물, 해조류,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항공유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과 생산·급유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국내 바이오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 ▲국내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위한 시장조사 및 연구 개발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관련 정책 건의 등의 부문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영풍석포제련소, 코로나 극복 성금 1억 쾌척

적십자사에 희망나눔 성금 전달
자가격리자 비상식량 제작 사용

영풍석포제련소가 30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류시문)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나눔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성금은 자가격리자 비상식량 세트 2500세트 제작에 사용된다. 비상식량세트는 경북도내 자가격리자 영양공급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사용된다.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장은 "회사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류시문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주신 영풍석포제련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성금 5억원을 경북적십자사에 기부한 바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법인단체 고액 기부모임(RCSV)에 가입하는 등 지역사회에 온정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장(왼쪽)이 류시문 경북적십자사 회장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양성운 기자 ysw@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보 △울산·경남도회 사무처장 금동욱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김형범

◆**산림조합중앙회** ◇원·본부장급 전보 △임업인종합연수원장 사공정한 △충북지역본부장 최선덕 ◇1급 전보 △산림경영부(해외법인파견) 윤경일 △산림사업본부 경북사업소장 송영범 △임산물유통센터장 최용익

◆**DB금융투자** ◇보임 △SP본부장 조규태 △SP1팀장 김태운 △인천지점장 가희정 △진접지점장 한용환 △화성향남지점장 박원철 △리스크관리팀장 박지용 △인사파트장 장윤석 △기업문화파트장 최웅걸 ◇전보 △을지로금융센터장 박호석 △강남금융센터장 주상혁 △잠실지점장 공우진 △평촌지점장 최성호 △분당지점장 정효성△대전지점장 김창호

◆**AI타임스** 호남취재본부 ◇승진 △편집국 부장 유형동

부음

▲김필남 씨 별세, 이학수(경남도교육청 공보담당 사무관)씨 모친상= 30일 오전 0시 17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390 고성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7시. 055-672-5000

▲김외순씨 별세, 최현(유진투자증권 홀세일(Wholesale)본부장)씨 모친상 = 30일, 경남 삼천포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월 2일, 장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선영. 055-835-2244